

뉴멕시코  
한인들을 위한

# 광야의 소리

## Voice in the Wilderness

11-12월호  
2018년



산타페 스키장 근처 등산로의 아스펜 단풍 사진:김석훈 목사

한인회장인사

##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의 소식에 임기 마지막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9개월의 임기 동안 한인회에 성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많은 교민분께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됨을 양해해 주시고 지면을 통해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우리 임원단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여러 행사를 해 왔습니다. 모두 다 잘 된 것은 아니었겠지만 저를 비롯한 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100%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18대 한인회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더 부응하리라 믿습니다. 임기를 마치면서 교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18대 한인회장 선거로 인한 불협화음으로 교민 사회가 혼탁해지거나 분열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따라 주시기를

문상귀

뉴멕시코 한인회장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18대 회장이 되든 간에 서로 화합하고 격려해 봉사자들이 기쁘게 봉사할 수 있고 어버이들이 마음 편히 한인회관을 드나드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민들의 봉사로 지난 11월 3일에는 김치 축제를 지역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잘 끝냈고 10월 28일에는 뉴멕시코주 처음으로 풀뿌리 운동과 궁금해하셨던 국적법과 해외동포법 설명회도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와 한인의 밤 행사에도 뉴멕시코주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교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만복이 깃들시기를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

**유권자 여러분의 정직한 한표가 뉴멕시코주한인회를 바꿉니다.**

## **제18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선거**

**한인회장후보      기호 1번 윤태자**  
**기호 2번 민명희**

**선거일과 장소:    2018년 12월1일 토요일**  
**오전10시-오후4시까지**  
**한인회관**

**-투표는 1인 1표로 하며 타인이 대신 투표할 수 없다.**

선거권을 가질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의 뉴멕시코주 거주자로 1년이상 뉴멕시코주에 거주한 한인 중 2018년 6월 30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유권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증,여권)을 제시 하여야 하며 유권자등록서의 주소와 서명 일치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투표할수 없다.

우편투표는 한인회관으로부터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뉴멕시코주지역에 한함.  
 우편투표가 해당되는 지역은 유권자마다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했고 신청서 마감은 11월14일이며 투표마감은 11월28까지임.

**제18대 뉴멕시코주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뉴멕시코주한인회**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9607 Manua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 뉴멕시코 어버이회 효도 관광

뉴멕시코 어버이회 회원들이 9월 18일에서 19일 (화, 수)까지 1박 2일동안 파고사 스프링스로 효도 관광을 다녀왔다. 문상귀 회장이 차량 운전을 담당했고 김경숙 이사장과 김미경 씨가 어버이들을 위해 봉사를 담당했다. 문상귀 회장은 “총영사배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5천 불의 기금 중 일부를 사용했다. 함께하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좋은 추억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함께 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다음 기회에 꼭 동행하시길 바란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김경숙 이사장님과 김미경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여행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킹뵈페로 모셔가신 윤태자 부회장님과 온전을 즐기시는 어버이회원들을 위해 기념품을 보내주신 민명희 부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리조나타임즈 2018-9-26) ■



## 11/12월호 주요내용

한인회장 인사 | 교민여러분 | 문상귀 : 1  
한인회소식 | 한인회 소식 : 2-5  
지역사회소식 |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 6  
지역사회소식 | 뉴멕시코 지역 사회 지난 소식: 7-11  
정치 | 2018년 미 중간선거 결과: 12  
칼럼 | “사람, 삶, 사랑” | 김기천 : 13  
수필 | 지혜로운 새 | 이정길 : 14  
VOA 한국어 방송 |타박타박 미국여행 뉴멕시코 : 15  
생활상식|행복한 미국생활 #21 : 학비연방보조/장학금 : 16  
설교요약 | 성령의 열매 | 김기천 : 17  
수필 | 선유당 문을 열며 | 이명길 : 18  
생활상식 | 원치않는 전화 차단하기 :21  
유머칼럼 | “갓”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22

## 풀뿌리 운동 및 국적법 재외 동포법 설명회

10월 28일 일요일 5시 30분부터 UNM Continuing Education Room C에서 뉴멕시코 지역 제1회 풀뿌리 운동 콘퍼런스를 열었다.



1부에서는 풀뿌리 운동으로 정종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시카고지역협의회 회장이 강의를 했다. 정 회장은 KA 보이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일리노이 한인이 미국 사회에서 손님이 아닌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일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앞으로도 중서부 지역에서의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며 한인 유권자의 힘을 모으고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워냄으로써 한인 커뮤니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의 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다. 휴식 후 2부에서는 국적법과 재외 동포법에 대해 LA 총영사관 박상욱 법무 영사가 강의했다. 한국국민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 자녀의 국적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 출생해서 한.미 복수국적자가 된 남성은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한국 병역의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한국 국민이 미국에서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65세 이상의 미시민권 동포는



임후보를 소개하는 문상귀회장과 윤태자(중앙)씨와 민명희(오른쪽)씨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가질 수 있다. 복수국적자인 자녀가 국적선택을 하려면 부모의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부 또는 모의 국적상실 신고도 해야 한다는 등 국적이탈신고, 혼인신고, 출생신고, 국적 상실신고에 대해 자세히 안내했다. 강의를 끝난 후엔 제18대 뉴멕시코 한인회장 선거에 임후보한 두 후보 (윤태자, 민명희)의 인사 소개가 있었다. ■

## 제11회 김치축제성황리에 열려

뉴멕시코 한인회 주최 엘에이 총영사관과 재외동포재단,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뉴멕시코 코윈의 후원으로 올해 열한 번째로 열린 김치 축제가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서 막을 내렸다. 11월3일 오전 10시 가을의 맑은 날씨 아래 박광종 코윈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한국학교 어린이들의 난타 공연, 하와이언 댄스, 벨리댄스, 이희정, 박애나, 이영혜 씨의 부채 산조와 아프리카 드럼, 이희정 예술부장을 단장으로 한 이영혜, 박애나, 윤진옥, 문영란, 손말레 씨의 사물놀이 공연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예년보다 참가 주민들을 무대로 초대해 소통과 공감을 끌어낸 것이 색달랐다. 특히 사물놀이 공연은 축제의 분위기를 돋우며 의상과 악기로 관심을 모았다. 코윈과 한국학교는 회관 곳곳에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매듭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 김치 만들어 보기, 부채 만들기 등을 통해 한국 정서를 가깝게 체험케 했다. 축제를 위한 재료 준비를 총괄한 윤태자 부회

장은 “배추 20박스와 150파운드의 불고깃감이 주재료이다. 그 외 재료들은 골고루 지역 한인 마켓에서 구매했고 행사 이틀 전부터 장보기와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교민들께 감사한다.”고 했다. 행사를 위해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 백김치, 주님의 교회에서 오이 김치, 아리랑마켓에서 만두, A1 마켓에서 깍두기, 김스마켓에서 열무김치를 후원했고 이인 씨가 1000불, 최신옥 씨 500불, 김영신 전 회장 200불, 윤진옥 씨가 한복을 후원했다. 행사를 이끈 문상귀 한인회장은 “300명이 넘는 지역주민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셨다. 한인회는 이름 없이 섬기는 봉사자들의 힘이 기반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행사였다. 임기 안에 남은 마지막 행사들에도 교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원거리인 텍사스 아마릴로(Amarillo, TX.) 한용현 목사님과 교우들, 뉴멕시코 클로비스 이성희 목사님과 교우들이 방문해 축제를 함께 즐겼다. ■

### ----- 사진으로 보는 김치 축제 -----





## 문상귀씨한인회장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다

뉴멕시코 한인회장인 문상귀씨는  
한국정부로부터 지난 10월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한국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제12회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확정한 유공 정부포상자 명단을 10  
월 19일 발표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 1명, 모란장은 4명, 동백장 6명, 목련장 7명,  
석류장 8명, 국민포장 12명, 대통령 포장 33명, 국무총리포장 23  
명 모두 94명의 명단을 외교부 에서 발표했다.

문상귀 회장은 뉴멕시코 동포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인  
정치력 신장 등을 지원한 공으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제12대 한인회장을 하면서 뉴멕시코주  
한국전 참전 기념비 건립을 주도하고 김치 축제를 처음으로  
시작해 고전무용, 어린이 합창, 태권도 시범 등을 선보이며  
한국 문화 홍보에 앞장서 왔고 17대 회장직에 있는 동안 한인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시작했다. ■



## 뉴멕시코 지역 순회 영사 업무 실시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순회 영사업무를  
실시했다.

LA 총영사관 소속 양상규 영사,  
김희연 실무관, 이항률 실무관이  
업무를 보았다.

영사업무에서는 여권 관련 9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2건, 영사확인  
(공증) 7건, 가족관계증명서 31건,  
가족관계등록(출생신고 등) 7건,  
국적 12건, 상담 등 기타 18건으로 총 86  
건을 처리했다.

이날 저녁 영사업무 팀은 골프대회 참가자 모임에 참석하여  
간담의 시간도 가졌다. ■



양상규 영사

## 뉴멕시코 한국학교 컨설팅 사업에 참여

뉴멕시코 한국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10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LA 한국 교육원과 미주 한국학교 총연합회가  
주관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한글학교 운영상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학교의 자발적  
발전을 지원하고 문화와 역사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사업으로 뉴멕시코 한국학교에는 미주 한국학교  
총연합회의 부회장이자 LA 감사 한국학교 교장인 용승, LA  
벤엘교회 소속 한국학교의 연구부장인 김명희, 남가주 한국학교  
교육감인 김숙영 씨가 컨설팅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세 명의 컨설팅 위원들은 10월 19일에는 성인반 수업을 참관하고  
한인회 회장을 비롯한 한인회 임원진과 교사들이 모여 면담을  
했으며 10월 20일에는 아동반 수업을 참관한 후 학부모들과  
면담을 했다. 각 면담을 통해 컨설팅 위원들은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해결책과 여러 가지 방안을 깊이  
있게 나누었다. 위원들은 뉴멕시코 한국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특별히 방학 때 운영되고 있는 캠프의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한인회 임원 및 인사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용승 컨설팅 팀장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학교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진을 칭찬하였다.

컨설팅 결과는 컨설팅에 참여한 8개 학교의 컨설팅 모두 마친 후  
11월 중에 보고될 예정이다. (아리조나타임즈에서 전제 9-26) ■



용승 미주한국학교연합회 부회장/팀장(뒷줄) 벤엘교회연구부장 김명희 선생  
(앞줄 왼쪽), 김숙영 남가주 한국학원 교육감, 박영신 교장(뉴멕시코한국학교),  
정지예 교감(뉴멕시코 한국학교)

## 코원에서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시연

9월 22일 아침 9시부터 코윈(KOWIN)주최로 한국학교에서  
코윈과 한국학교 학생들이 송편만들기를 했다.  
먼저 박광종 코윈 회장이 송편만들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윤태자  
부회장과 함께 준비한 재료로 만들기 시작했다.  
한복을 입고 명절을 맞이한 한국학교 학생들은 떡반죽으로 만든  
자신들의 작품이 떡이 되어 나오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며 맛을  
보기도 했다. 집에 갈 때는 가정으로 가지고 가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 ■



## 뉴멕시코 한국학교 소식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한국학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가을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LA 한국 교육원과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가 주관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글학교 운영상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학교의 자발적 발전을 지원하고 문화와 역사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사업으로 기대 반, 염려 반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인회 문상귀 회장님과 한인회 담당 민명희 부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 아래 2일간의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LA에서 오시는 3분의 컨설팅 위원님들을 위해 한인회 사무총장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틀 동안 라이드를 해주셨고 한인회장님의 주선 아래 학부모님 미팅도 뜨거운 열기 속에, 다 함께 한국학교의 미래와 앞으로 갈 길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컨설팅 위원님들은 우리 뉴멕시코 한국학교가 특수한 상황에서, 또 한국문화와 정보를 접하기 비교적 어려운 환경이지만 잘해나가고 있음을 칭찬해 주셨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김치 축제를 위해 올해에는 컨설팅 위원이셨던 김명희 선생님(LA 벤엘교회 연구부장)께 배운 테이블 난타를 선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난타 북을 대신해 교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인상 깊었고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날리며 즐겁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박영신

한국학교 교장



‘김치 없이는 못 살아’ 노래를 통해 김치 축제와 딱 맞는 노래까지 배웠으니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한 학기가 끝나갑니다. 한인회를 비롯한 많은 분의 관심과 격려 속에 이번 학기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추억거리와 즐거움을 남겨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한 달간의 수업도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번 겨울방학에도 아이들을 위한 겨울 캠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직 준비 중이며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학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서린 학생, 2019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에 입선

2019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에서 뉴멕시코 Los Lunas에 있는 Sundance 초등학교 1학년 이서린 (Serene Lee) 학생이 '과거와 현재의 무궁화'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입선 수상자가 됐다. 서린양은 소코로에 있는 뉴멕시코텍 대학의 이국태 교수와 감리교회 첼로 반주자인 최유진 성도의 딸이다.



LA 한국교육원과 미주한인재단은 '한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공모한 이번 대회에 미 전역에서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총 844명이 응모했으며 이중 학년별 1등을 포함해 총 66편의 입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작품은 "2019년도 달력제작"에 포함되며 모든 입상작품은 오는 11월27일~12월10일 LA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2층, 12월 14~27일 세리토스 도서관에서 각각 전시되며, 시상식은 미주한인의 기념일인 2019년 1월12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 갈릴리 장로교회 장미경 집사 초청 간증집회 열어



갈릴리 장로교회는 9월 16일 주일 오후 4시에 장미경 집사를 초청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간증 및 찬양 콘서트를 열었다. 장미경 집사는 '죄 집 말은 우리구주' 외 10여 곡을 찬양하며 자신의 삶에 다가오신 주님을 간증했다. 집회 후 초청받은 지역주민들과 다과를 나누었다.

담임 류종재 목사는 1980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1981년부터 1998년까지 총회 및 SIM 파송 라이베리아, 가나, 남아공 선교사로 사역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앤아버 한인교회 담임 후 2007년부터 갈릴리 한인 장로교회 목회를 맡고 있다. ■

## Gary Lee씨 앨버커키 Assistant Mayor로 발탁

앨버커키 시장 팀 켈러(Tim Keller)씨는 앨버커키 출신 한국인 2세 게리 리(Gary Lee)씨를 시장을 보좌하는 Assitant Mayor로 임명했다. 게리 리 씨(33세)는 앨버커키에서 엘도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가톨릭 공동체의 이사한 씨와 이옥희 씨의 장남이다. 대학을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마치고 백악관에 입성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일했고 풀브라이트 (Fulbright)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가서 수학하고 왔다.

그후 앨버커키로 돌아와서 뉴멕시코 대학(UNM)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게리씨는 정든 고향 홈타운인 앨버커키에 와서 그가 백악관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켈러 시장을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라고 소감을 인터뷰에서 말했다.

KOB TV에서는 게리씨와의 인터뷰를 방영했고 인터뷰 내용은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에 공유한 포스팅에서 볼 수 있다.

앨버커키 저널에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왔다. 신문 기사 제목은 "Keller appoints ABQ native assistant mayor" 인데 [www.abqjournal.com](http://www.abqjournal.com) 홈페이지에서

Gary Lee를 검색하면 이 기사를 읽어 볼 수 있다. ■

**창립 21주년 감사**  
이은수목사와 함께하는  
**찬양예배 Concert**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약속은  
사망의 약속입니다  
사망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부다 주시옵소서!

일시 \_ 11.18.(주일) 오전 11:30  
장소 \_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 뉴멕시코 한인 회장단 배 골프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뉴멕시코 역대 한인 회장단 배 골프대회를 9월 24일 월요일 1시부터 UNM Championship Golf Course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골프대회가 끝난 후 저녁에는 사무라이 식당에서 추석을 겸한 만찬을 열었다. 전직 회장단이 200불씩을 후원하고 참가자들의 참가비 80불로 운영했다.

역대 회장으로는 이경화 전 회장과 김준호 전 회장 내외, 순회 영사업무 차 방문한 양상규 영사와 김희연, 이항률 실무관이 참여했다.

양상규 영사는 “뉴멕시코주 한인회 분위기가 은퇴 후 정착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같이만 좋으면 더 크게 번창할 것이라며 뉴멕시코 한인회의 번창을 늘 응원하겠다”고 했다.

이경화, 김준호 전직 회장은 “골프대회를 통해 한인사회가 더 크게 발전하길 바라며 각 가정에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문상규 회장은 “김치 축제가 11년 전에 시작해 지금까지 연례행사로 이어져 오듯이 오늘 이렇게 높은 호응을 얻은 골프대회가 앞으로 계속 연례행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있는 몇 가지 행사들에 여러분들의 협조와 후원을 바란다. 10월 21일에 있을 풀뿌리 운동과 11월 3일 김치

축제 12월 1일에 있을 한인회장 선거에 유권자등록을 하신 모든 분이 한 표를 행사해 주기 바란다. 마지막 행사인 12월 9일에 있을 한인의 밤 행사에는 한국에서 유달산, 한강수 품바 공연과 김막동 코미디언을 초청할 예정이다. 많은 후원과 참석 바란다”고 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성희 골프리그 운영위원장이 오늘 행사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고 게임과 시상을 진행했다.

역대 회장 배인 만큼 이경화 전 회장과 김준호 전 회장이 시상을 맡았다. 상품으로는 7개의 트로피와 산디아 골프 회원권, 음료수 냉장고, 아이스 박스, 야외용 의자 등의 상품과 상금을 전달했다.

남자부 우승에는 문상규 회장, 여자부 우승은 최티나 씨, 한인회배 우승은 이재호 씨, 한인회장배 우승은 김용환 씨, 장타 상은

윤홍규 씨, 근접 상은 마이크 조 씨, 센터 상에는 심강희 씨, 장년부 우승에는 문만길 씨, 중년부 우승은 조한욱 씨,

초년부는 고진석 씨, 민명희 씨가 후원한 라플 산디아 멤버십 우승은 윤홍규 씨, 친구 따라 강남

상에 장재준 씨가 수상했다.

라플티켓 판매로 얻은 소정의 수익은 한국학교로 전한다.

뉴멕시코 한인 골프리그를 위해서는 인맥이 넓은 정대식 씨가 디렉터로 활동하기로 됐다.

골프대회 등록은 21명이 참석했고 저녁 식사에는 49명이 참석했다.

(아리조나타임즈에서 전재 2018-9-26) ■

## 뉴멕시코 어버이회 소식

교민 여러분

벌써 가을이 다가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한해도 마무리할 때가 되었고 한인회도 여러 가지 행사가 행하여졌고 또한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회 소속 어버이회는 한인회 주최로 효도 관광을 콜로라도 파고사 온천으로 다녀왔습니다.



윤태자  
뉴멕시코 한인회  
수석 부회장

매년 어버이회는 회비를 기초로 교민

여러분의 식사후원과 현금후원 그리고 임원들과 봉사자들의 헌신으로 꾸려져 나왔습니다. 동참해 주신 단체나 개인에게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버이회 회원 중 아프신 분도 계시고 긴 시간 투병 중이신 분도 계시는데 속히 쾌차하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회 어르신들은 움직일 수 있는 한 식탁을 차리고 정리도 하시고 서로 도와 식사하시고 아프신 분들 음식배달도 자진해서 하시는 모습에서 사람의 정을 알게 되고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올 한해 식사후원은 아리랑마켓, 차성희, 이희정, 이경화, 코인, 김희수, 감리교회, 조영희, 윤태자, 이영해, 박안나, 이명길, 가톨릭공동체, 문상규, 김경숙, 민명희, 한국학교, 박창규, 임낸시, 마이크조, 정풍자씨입니다. 현금후원은 유흥례, 김문자, 차성희, 서순달, 조은순, 김경숙, 유금림 친구분들, 김두남, 윤진옥, 임혜숙, 김길자, 이정길, 정복순, 김순례 씨입니다.

외부에서 도움도 많았고 임원들 회원들이 서로 돕는 모습에서 사랑의 빛은 더욱 세상을 환하게 함을 느낍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의 우리 민족의 전통 미덕대로 조금씩 돕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매주 어버이회가 잘 꾸려져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



사진:(왼쪽부터)문상규, 김준호, 이경화, 심강희, 마이크조, 이성희



## 맥스웰 주니어씨 대령으로 승진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근무해오던 알버키키 출신인 멀빈 맥스웰 주니어씨가 지난 8월 공군 대령으로 승진되었다. 그는 알버키키 연합감리교회 교인인 멀빈 맥스웰 집사와 송정옥 권사의 장남으로 최근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 공군본부에서 근무해왔다.



지난 8월 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 국방 병참국(国防兵站局Defense Logistics Agency)에 보직을 받아 8월30일 그곳 DLA의 Mark Simerly 준장의 사회로 개최된 승진 축하식에서 멀빈 맥스웰 주니어 대령은 “미 국방 병참국의 군지원부의 일원이 된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새로운 지휘관 임무에 대한 열정을 말했다.

기자의 질문 중에서 펜타곤 미 공군

본부에서 일하면서 배운것은 무엇이었나? 라는 질문에 “미 통합군이 보다 더 국방에 잘 준비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방력을 높이는데 있어서 병참과 보급 지원은 중대한 임무를 감당해야 할것” 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좋아하는 운동팀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시절에 나는 뉴멕시코주 알버키키에서 살았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텍사스 달라스의 카우보이팀이 CBS 에서 그리고 콜로라도 덴버의 브롱코 게임이 NBC에서 방영 됐었는데 나는 브롱코팀을 좋아했다. 대학 풋볼에서는 공군 사관학교의 펠콘팀을 좋아한다 라고 했다.

송정옥 권사와 남편 멀빈이 함께 아들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교우와 친지 여러분을 초대하여 자축파티를 지난 9월29일 자택에서 베풀었다.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고 맥스웰 주니어 대령은 댓글을 이렇게 달았다. “나의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중에서 제일 크면서 내가 초대 받지 못한 멋진 파티인것 같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오늘까지 밀어준 부모님께 감사한다”

축하파티에서 김기천 목사는 맥스웰씨 가정의 경사를 하나님께



## 교회음악 세미나 개최

알버키키 연합감리교회 찬양대에서 주최한 교회음악 세미나가 지난 11월 4일 오후 3시 연합감리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는 11월부터 새롭게 지휘자로 섬기게 된 마이크 조 장로(이하 조 장로)에 의해 총 3부로 진행되었다. 조 장로는 40년 넘는 기간, 찬양대원과 지휘자로 섬기면서 배우고 익힌 교회음악의 정의와 역사를 시작으로 성악 발성과 호흡, 기본 음악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짧은 시간이지만 깊이 있게전하려고 노력했다.

1부에서는 전반적인 교회음악의 역사와 정의에 관해 설명하였다. 특별히 찬양 자체가 예배이므로 더 좋은 찬양으로, 새 노래로 함께 찬양하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2부에서는 찬양 대로서의 바른 발성과 자세, 그리고 호흡을 가르치며 참석한 교인들과 함께 실제로 발성 연습도 하였다. 3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악보를 볼 때 알아야 할 음악 상식에 대해 강의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약 30명의 찬양대원들과 성도들은 조 장로의 유머러스한 강의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임했으며 강의가 끝난 후에는 맛있는 저녁 식사가 제공되었다. ■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가정을 지켜주셔서 지역사회의 모범되는 가정으로 지켜 주실것을 식사기도를 통해서 기원했다. ■



## John Gregory Camp 씨의 장례식 마쳐

산타페 한인 장로 교회의 John Gregory Camp 씨의 장례식이 9월 21일 오후 5시 고인의 가족, 친지, 동료, 지인들이 모인 가운데 Rivera Family Funerals and Cremations-Santa Fe Funeral (417 Rodeo Rd, Santa Fe, NM 87505)에서 열렸다.

장례예배 집도는 산타페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인 김석훈 목사가 맡았고 사회는 평소 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산타페 거주 화가인 Gary Kim 씨가 맡았다.

고인의 지인인 네이티브 아메리칸 Sky Red Hawk 씨의 연주곡이 장례식장을 들어서는 애도객들을 맞이했다. 대표기도는 장종혁 장로가 했고 설교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본문으로 '주 안에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김석훈 목사가 했다.

김석훈 목사는 "성도의 죽음은 죽어도 다시 사는 산 소망과 주님과 함께 본고향에서 거할 소망이 있기에 일시적인 헤어짐으로 슬픔은 있으나 두렵지 않다. 바로 전날인 주일날 헤어지면서 Camp 씨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했던 'God be with you'라는 인사를 부인인 이윤정 장로에게 전해 드린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족들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고인의 지인들이 고인을 추모했고 교우들이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조가로 불렀다.

앨버커키 저널은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실어 고인을 애도했다. 주의 수석 국선변호인인 Ben Baur는 "약 4년 전에 캠프 씨가 뉴멕시코로 와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훌륭한 변호사이자 훌륭한 사람이었다. 북부 뉴멕시코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했다. 그는 사람들을 좋아했고 그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으며 그들을 대표해 훌륭하게 대변했다"고 그를 기억했다.

산타페에 있는 OCD Custom Cycles의 소유자인 Marc Beyer는 "Camp 씨는 지난주 여러 가지 수리를 받고 자전거를 찾아갔다. 나는 그를 오토바이 변호사라고 부른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사방을 다닌다. 코트에도 사무실에도 양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탄다. 그는 오랫동안 만나온 좋은 사람이었고 매우 안전한 운전자였다. 타이어와 기름 교체를 위해 매주 방문해 왔고 오클라호마 여행을 얼마 전에 다녀온 거로 안다. 그의 모터사이클 K1600GT는 약 48,000 마일을 사용했다"고 했다. Camp씨는 사진 작가기도 하고 Beyer의 가게에 몇 장의 사진을 기증하기도 했다고 한다. 장례식에 참석한 한 애도객은 그의 마지막 인사 "God be with you!"가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는 애도객들의 마음과 산타페의 저녁노을에 깊이 새겨지는 하루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리조나 타임즈에서 발췌) ■



## 오영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의 이석종 원로 목사의 사모인 오영 (Christine Young Oh) 권사가 지난 10월 24일 10시 37분에 소천했다. 1935년 2월 8일에 출생 향년 84세로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10월 26일 오전 10시 French Funerals & Cremations에서 김기천 담임 목사의 집례로 열렸다.

예배 기도를 드린 이명길 목사는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로 참 어머니로 살게 하시고 이제 평생 주의 곁에 두게 하시려 부르셨다"고 기도했다. 특별 찬양은 마이크조 장로의 지휘와 이유신 집사의 반주로 약 20명으로 구성된 성가대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을 불렀다. 김기천 목사는 설교를 통해 "고 오영 권사는 도미 후 홀로 3자녀를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알버커키 감리교회를 창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셨다.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신앙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었고 믿음의 선배가 되어 주셨다. 병상 가운데서도 돌아가시기 2주 전에 교회에 나오셔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후배들에게

믿음 생활을 격려하셨다. 사랑했던 교우와 가족 친구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가족 대표로 남동생인 오영환 박사가 고인의 약력을 소개했다. 고인은 54년에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58년 이대 약대를 졸업, 73년에 도미 70년대 후반에 뉴멕시코대학에서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동생은 "누님은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하는 사람이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한 분이였다. 교회를 시작할 때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기억한다. 형제를 대신해서 교우와 지인들이 보살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다. 마지막 가족 대표 인사에서 이석종 목사는 "오 권사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다. 15년을 같이 생활한 오 권사가 가는 3일 동안 비가 별로 오지 않는 사막인 이곳에 계속 비가 내렸다. 더 자유롭게 편하게 해 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아쉽다"고 했다. 이어서 Gate of Heaven Cemetery에서 하관예배를 했다.

장례식에 참여한 하객들을 위해 고인을 아끼고 사랑하던 지인들이 물심양면으로 장례절차를 도왔다. 김경숙 이사장, A1마켓 신옥주 권사, 양재숙 씨, 조문성 부이사장이 장례비를 후원했고 하객들 점심은 양재화, 양재연 씨가 후원해 Buffet King에서 대접했다. (아리조나 타임즈에서 발췌) ■





## 탈북자 지성호 씨 간증집회 열어



올해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소개한 바 있는 지성호 씨(1982 년생)가 앨버커키를 방문했다. 지 씨는 탈북자이자 북한 인권 청년 단체 나우(NAUH: Now Action & Unity for NK Human Rights)의 대표이다. 미 국무부 초청으로 전국 순회 방문 중 앨버커키에 왔다가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10월 29 일 저녁 7시에 월요 성경공부팀 주최 선교 간증 집회를 열었다.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 3분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상세하게 소개한 바 있는 지 씨의 사연이다.

“지난 1996년(14살) 북한에서 기차에 실린 석탄을 훔쳐 팔아 식량을 구하려던 지 씨는 배고픔에 지쳐 기차 길에 쓰러져 달리는 기차에 한쪽 다리와 손가락 세 개를 잃었다. 이후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현재는 서울에서 탈북자 구출과 대북 방송 등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정착하기 전까지 고문을 당했고, 그의 아버지도 탈북 과정에서 고문 피해로 사망했다. 지 씨에게 새로운 다리가 생겼지만, 지 씨의 목발은 그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를 상기시킬 것이다. 그의 위대한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감화를 준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증거이다”고 했다.

지 씨는 1차 중국으로 탈북했을 때 알게 된 하나님이 자신을 북한에 태어나게 하고 탈북하게 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유만이 아닌 뭔가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2010년 4 월 북한 인권단체인 NAUH(나우)를 출범하고 중국에서 60 만 원에 팔려가는 20여 만 명의 탈북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카드 판매와 모금 등을 펼치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300명의 탈북동포를 구출했다.

나우가 현재 꾸준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캠페인과 교육, 긴급구출이다. 출범 시기부터 현재까지 월 1~2회씩 강남, 대학로, 명동 등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북 라디오방송, 국제무대에서의 북한 실상 증언, 북한 장마당 재연행사, 토크콘서트 등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과 북한 인권실태를 알리는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으로는 리더십교육, 자원봉사자캠프, 희망 드림 캠프, 남북살롱, 통통 축구리그 등 탈북동포들이 남한 사회에 잘

(12쪽으로 계속)

## 뉴멕시코 하원의원 출마 리사 신 후보 모금행사 열어

뉴멕시코 43지구 하원의원 공화당 후보인 리사 신이 8월 30일 White Rock에서 모금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 공화당 하원 의원 빌 레드먼드 (Bill Redmond)와 현 부주지사인 John A. Sanchez가 지지자를 모으기 위해 White Rock으로 모였다.

신 씨는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주 방문하지 않았던 그룹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했다.

또한, 마약 남용 방지, 직업과 비즈니스 성장, 직업 교육 우선, 장기적으로 로스앨러모스 국립 연구소의 성공을 위한 지원 등 4가지 공약에 관해 이야기했다. 신 씨는 “나의 공약은 폭넓은 지지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세금 및 규제 개혁을 통해



비즈니스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나 자신이 중소기업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일에 열정을 쏟을 것이고 강한 목소리로 미국과 우리 주를 위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임무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을 쓸 것이다”고 했다.

신 씨는 또한 직업 교육과 중소기업의 연계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주가 우선하여 직업 교육을 하면 더 많은 주민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소규모 사업체가 발전해 궁극적으로 주를 도울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신 씨는 “건설, 보건 과학,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뉴멕시코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주 의회에서 직업교육을 우선으로 시작하면 중소기업에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 주지사인 Sanchez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그는 특정 프로그램과 정책을 되살리는 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책임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자녀 교육에 있어 본인이 배웠던 원칙과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부모는 우리 자녀의 교육에 있어 첫 번째 방어선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자”고 했다. 또한 교육 선택과 관련하여 부모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고 싶다면 보내라. 보내기에 앞서 교사가 올바른지 올바른 시스템인지를 확인하라. 하지만, 홈스쿨이나 사립 학교에 보내고 싶다면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도 주라.

(12쪽으로 계속)



## 2018년 미 중간선거 결과

11월 6일에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승리했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또 주지사 선거에서는 몇 자리를 추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중 35명을 뽑게되었다. 공화당이 2석을 추가해서 공화당 의석이 전체 51석이 됐고 반대로 민주당은 2석을 잃어서 46석이 됐다. 따라서 공화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뉴멕시코주에서는 Martin Heinrich(민주당)씨가 재선됐다.



Martin Heinrich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데 다수당이 되려면 218석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31석을 추가해서 226석, 그리고 공화당 198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로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셈이다.

뉴멕시코주에서는 Deb Haaland, Xochitl Torres Small, Ben Ray Lujan이 당선됐다. 세 후보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제1지역구(앨버커키지역)에서 59%의 표를 얻어 당선된 데브 하란드씨는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최초의 미 원주민 푸에블로 여성 의원이 된다. 뉴멕시코 남부에 해당되는 2지역구에서 당선된 쏘치틀 토레스 스몰은 2지역구에서 당선된 최초의 라틴계 여성 하원의원이 된다. 뉴멕시코 북부 3지역구에서 벤 레이 루한은 여섯 번째가 되는 재선으로 하원의원 자리를 굳혔다.



Deb Haaland



Xochitl Torres Small Ben Ray Lujan



금년 중간 선거에서 특기할 사항 한가지는 한국계 후보 두사람이 동시에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 39지역구에서 출마한



영 김



앤디 김

영 김 후보와 뉴저지 3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앤디 김이 당선되어 김창준 전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이후 20년 만에 한국계 후보가 하원에 동반 진출하는 이민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 세워졌다.

주지사 선거에 있어서는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를 이번에 새로 뽑았는데 민주당이 7개 주지사 자리를 추가했다.

그래서 민주당 주지사가 23명이 됐고 공화당은 6개주를 잃어서 26명이 주지사가 됐다. 뉴멕시코주에서는 Michelle Lujan Grisham(민주당)씨가 Steve Pearce(공화당)씨를 누르고 당선됐다. 미셸 루한 그리샴 씨는 현재 마르티네즈 주지사와 같은 라틴계의 여성이며 민주당의 여성으로는 최초의 뉴멕시코 주지사가 된다.



Lujan Grisham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지켜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수행이 민주당에 의해서 막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백악관과 공화당은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상원은 관료와 연방 관사 임명 동의, 외국과의 조약 승인, 군대 파병 동의 같은 굵직한 권한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뉴멕시코주 43 지역구 하원의원에 출마한 리사 신(Lisa Shin)씨는 민주당 후보 Christine Chandler씨에게 아깝게도 패하였다. ■

### 리사 신 후보 모금행사(11쪽에서 계속)

교사 노동조합이 뉴멕시코에서 공교육을 강탈했기 때문에 산타페에서는 그럴 선택권이 부모에게 없다. 교사 노동조합과 맞설 리사와 같은 입법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리사 신을 지지하는 이유이다”고 했다.

리사 신은 96년부터 지난 20여 년간 43지구에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 왔다. 본인을 소개할 때 40여 년 전에 미국에 온 한인 이민자의 딸임을 강조한다. Wellesley College와 Pennsylvania College of Optometry에서 학위를 받은 후 1996년 뉴멕시코의 Los Alamos로 이사했다. 리사 신 씨의 어머니인 신수자 사모는 딸의 기금 모금회에 참석해 딸의 활동을 지켜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탕탈트를 물어버리지 않고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선거 당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길 기도하고 한인사회에서 정치인이 나온 것을 감사한다.”고 했다. ■

### 탈북자 지성호 씨 간증(11쪽에서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취업 지원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긴급구출은 2011년 남북한청년들이 모여 북한 인권 개선 캠페인을 벌이며 제3국에 서도 탈북동포들이 인권유린과 인신매매 등의 학대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장학금, 개인기부금 등을 모아 구출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우는 청년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 교육 및 강연 활동을(2010.09~현재)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인권 캠페인을 진행(뉴욕 2011.12 .09.)하고 통일부 이산가족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2014.09)하고, 2014년에는 워싱턴 D.C 미 국무부 방문, 로버트 킹 대북 특사 면담(2014.02), 백악관 앞에서의 공연 외 꽃제비 재현팀 미국 순회공연(2017.08.29.~09.10), 프린스턴 대학교 북한 인권 컨퍼런스(2017.03), 미 국무부 민주주의 포럼 연설(2017.09.15) 등 북한 인권 알리기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12쪽으로 계속)



## “사람, 삶, 사랑”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종이 박스 안에는 많은 폴더가 들어 있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초청장, 순서지, 메모지 등으로 채워져 있었지요. 폴더마다 제목이 붙여져 있었는데 주로 교회에서 있었던 행사들과 연관된 것들이었지요. 수련회를 다녀오면 관련된 팜플렛이나 강의 내용을 적은 노트 등을 폴더 안에 가지런히 모아 놓았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지요. 그런데 며칠 전 이 종이 박스는 커다란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오전 10시 37분에 오영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의 장례를 치른 다음 주일 오후에 유품들을 정리하러 교우들이 몰려갔습니다. 권사님이 쓰시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트럭 5대 분량을 쓰레기장에 던졌습니다. 참으로 많은 물건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영 권사님의 운명과 함께 버려졌습니다. 저의 손으로 권사님의 유품들을 버리면서 여러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쓰시던 물건에는 제가 모르던 권사님의 기억이 깃들어 있었겠지요. 지나온 권사님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물건들이 버려져서 먼지가 되면 우리 머릿속에서 남아있던 권사님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흐릿해져 가겠지요. 참으로 덧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한 주간 동안 한 번의 임종예배, 두 번에 추도 예배, 한 번의 장례예배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시는 분,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예배이었지요. 이런 예배는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언젠가 쓰레기로 버려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이 땅 위에 생활이 전부가 아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지요. 물질, 명예, 권력 등 그 어느 것이라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고 덧없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더 갖고, 더 쌓아놓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맹렬하게 싸우며 달려가고 있지요. 쓰레기통에나 던져질 것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2018년의 가을도 막바지에 도달했고 벌써 겨울 초입에 들어갔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하던 일을 멈추고 나의 마지막 모습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 한글로 “삶, 사랑, 사람”이란 세 단어는 본래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사랑을 하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이야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베풀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삶”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인류에게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지요.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지 아닌지를 알려면 다음 구절을 적용해보면 됩니다.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줍니다(베드로전서 4:8)” ■

### 탈북자 지성호 씨 간증(12쪽에서 계속)

행동하는 청년단체 NAUH(나우)의 대표 지성호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NAUH(나우)는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남·북 청년, 해외 교포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는 북한 인권단체로 2010년 4월 출범식을 가진 후, 크고 작은 많은 일을 진행해 왔다고 소개했다. 통일이 되는 날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이 “우리가 힘들 때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라고 했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일한다. 되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인권 유린을 당하는 동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서 있음에 감사하다고 했다. 옥수수 2개로 다섯 명의 식구들이 죽을 끓여 똑같이 나눠 먹을 때 피땀을 흘리며 탄광에서 일하신 아버지가 막내아들의 죽구릇을 바라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며 배고픔을 못 견뎌 1차 중국으로 탈북했지만 흰

쌀밥을 가족들과 한 번이라도 배부르게 먹기 위해 3kg의 쌀을 둘러메고 하룻길을 걸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6년 기도 후 다시 탈북에 성공했다.

그는 현재 3만여 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있는데 이 3만 명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어야만 진정한 남북통일도 꿈꿀 수 있다며 북한의 인권 없는 2500만 명의 영혼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해 주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북한의 삼부자 신격화와 기아, 세뇌, 인권 유린의 실상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들을 기회가 없었다며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간증 후 월요 성경공부팀이 특송을 했고 김기천 담임 목사는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며 심어진 물질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지성호 대표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을 주셔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

## 지혜로운 새

부엉이와 올빼미는 올빼미과에 속하는 새들로, 큰 눈과 원반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생김새가 아주 비슷한데다가 생태도 같아서 영어로는 둘 다 owl이라고 부른다. 두 가지 새를 구별해주는 가장 큰 특징은 머리 위로 삐죽 올라와 있는 부엉이의 귀다. 큰 눈에다 검은색 부리를 가지고 있어 올빼미보다 더 사납게 보인다. 둘 다 부리와 발톱이 날카롭고, 눈과 귀가 잘 발달되어 있다.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160여 종이 살고 있고, 우리 나라에는 솔부엉이를 비롯 모두 11종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은 것은 난쟁이올빼미처럼 60그램이 못 되고, 추운 북극에서 사는 흰올빼미는 2킬로그램을 넘는다.

똑바른 자세로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녀석들의 모습이 강가에 형성된 삼림 지대에서 많이 관찰된다. 열악하거나 유다른 곳에 자리 잡아 사는 동물이다. 헛간 따위 허술한 곳에 동지를 틀고 사는 황갈색이나 백색 올빼미도 있고, 초원에서 굴을 파고 사는 것들도 있다. 대개 외톨이로 살면서, 목을 270도까지 돌리는 새다. 대부분이 야행성이지만 해가 진 뒤의 어스름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고, 쇠부엉이처럼 낮에 활동하는 것들도 있다.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다가 생김생김도 가지가지여서, 우리 나라에 흔한 솔부엉이는 얼굴이 마치 고양이 같아 묘두옹貓頭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아주 긴 귀를 가진 부엉이, 아주 큰 귀를 가진 부엉이도 있다.

깃털이 부드러워 소리없이 날고, 특정한 방향의 소리만 듣는 지향성 청각을 지니고 있다. 큰 눈의 눈동자는 검은색을 띠며, 주위가 고리 모양으로 노랗다. 빛을 반사하는 점을 가진 예리한 눈이 암흑의 야밤에도 사냥할 수 있게 해준다. 설치류, 작은 포유류, 야행성 곤충, 물고기, 작은 올빼미들을 포함한 조류 등을 먹는 육식 동물이다. 소화되지 않는 뼈 털 이빨 깃털 등이 묻혀진 단단한 덩어리를 게워 낸다. 성질이 사납고 육식을 하는 날짐승이어서, 매목의 새들과 묶어 맹금류로 분류된다.

올빼미과 새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새들이다. 주로 이른 밤이나 새벽에 우는데, 그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서는 처절하게 들리기도 한다. 행태며 생태도 특이해서,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아 왔다. 부엉이가 울면 초상이 난다거나, 올빼미가 지붕에 앉으면 그 집이 망한다는 속담도 있다. 고독하고 의지할 데 없는 신세, 계산 속이 어두운 사람, 욕심쟁이 등을 비유하는 데도 쓰였다.

하지만 오래 전 올빼미과 새들은 지혜의 동물이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부엉이를 자기의 상징물로 가졌던 탓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잘 발달된 눈과 귀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로 밤에 사냥하면서 사람의

###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눈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동물들을 잡아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알려지지 않은 어느 시인은 <고요를 듣다> 라는 시를 지어, 부엉이의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를 깨우친다.

지혜로운 늙은 부엉이 참나무에 앉았다  
많이 보니 말은 그만큼 줄어진다  
말이 주니 그만큼 더 많이 듣는다;  
우리 모두는 왜  
저 슬기로운 새 같을 수 없을까?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더 많이 듣게 된다. 더 많이 들수록 이해는 훨씬 깊고 빨라진다. 동서 고금에 으뜸가는 네 성인들은 한결같이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분들의 진리는 간접적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비유를 통해 전달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침묵을 지킴으로써 전달되기도 했다. 특히 붓다의 침묵의 힘은 교리에 위대한 역할을 하여, 사상의 전달에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한다. 묵언은 여러 종교에서 중요한 수행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의사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시대라고 걱정하는 이가 많다. 정직하게 귀 기울여 듣기는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도 없어서, 진지한 대화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은 질문하고 나서 듣는 것이라고 한다. 흥미있는 질문을 한 다음 상대가 방해 받지 않고 대답하게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들을 수가 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며,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아는 건 더 중요하다. ■



미국의 소리(VOA) 방송

# 타박타박 미국여행 : 뉴멕시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한국어 방송에서 뉴멕시코가 소개됐다. 문상귀 한인회장의 인터뷰를 포함한 약 10분간의 방송 프로그램 녹취를 소개한다.(편집부)

미국 50개 주 중에는 유난히 이국적인 풍광을 자랑하는 곳들이 몇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하와이 같은 곳이지요. 본토 내륙에도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주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매혹의 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뉴멕시코주입니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풍물,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미국 서남부에 있는 주 뉴멕시코로 가 보겠습니다.

뉴멕시코는 미국의 서남부에 있는 주입니다. 그런데 간혹 뉴멕시코...하면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주가 아니라 중남미 국가 멕시코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뉴멕시코주는 유일하게 자동차 번호판에 U.S.A.라고 찍혀 있을 만큼 미국의 한 주라고 늘 상기시켜주는 곳이기도 한데요. 뉴멕시코주에서 35년째 살고 있다는 문상귀 한인회장의 도움말 먼저 들어보실까요?

[녹취: 문상귀 씨] “미국 서쪽에, 남쪽에 있는 주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뉴멕시코, 이렇게 4개 주가 맞대고 있는데 뉴멕시코도 그중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자동차에 미국 U.S.A. 번호판을 단 건 뉴멕시코가 유일합니다. 다니시다가 혹 U.S.A. 글자가 새겨진 번호판을 보면 그건 뉴멕시코주 차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의 주가 다른 나라 이름을 갖고 있는 걸까요? 뉴멕시코주 주민 프랭크 맥과이어 씨는 원래 이곳은 멕시코 땅이었다고 설명하네요.

[녹취: 프랭크 맥과이어 씨] “원래 이곳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푸에블로 인디언들이었죠. 그러다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오랫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요. 1821년에 멕시코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멕시코 땅이 됐다가 1840년대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이 이기면서 미국의 영토가 됐습니다.”

미국 동부 도시, 뉴욕이 과거 청교도들이 영국의 요크 지방 이름을 따서 뉴욕(New York), 새로운 요크로 지은 것처럼 뉴멕시코도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문상귀 씨 도움말입니다.

[녹취: 문상귀 씨] “저쪽 뉴햄프셔, 뉴욕, 뉴잉글랜드 이런 식으로... 미국에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넘어왔을 때, 요크, 햄프셔, 잉글랜드...이런데 뉴(New) 자를 붙여 미국의 영토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이 있거든요. 뉴멕시코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뉴멕시코는 지금도 스페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인디언들의 문화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곳이고요. 특히 주민의 약 30%는 스페인 말을 쓸 정도로 스페인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뉴멕시코주가 미국 연방에 가입한 건 1912년, 47번째로 아주 늦은 편이지요? 면적은 50개 주 가운데서 5번째로 여러 서부 주들 처럼 매우 넓은데요. 하지만 면적에 비해 인구수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녹취: 문상귀 씨] “남북한 합친 것의 1.5배 된다고 보면 됩니다. 큰 주입니다. 인구는 뉴멕시코가 200만 정도 되는데, 120만 명이 앨버커키에 살고 있어요. 뉴멕시코는 반이 사막이고 반이 산림지역인데 제가 사는 쪽은 사막 쪽, 앨버커키입니다.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저는 알밤도 주고 쿠키도 준다고 말합니다.”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의 사우스 밸리 마을.

들으신 것처럼 뉴멕시코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앨버커키에 집중돼 있을 만큼 앨버커키는 뉴멕시코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데요. 주도는 산타페지만 앨버커키가 사실상 이 주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의 주도인 산타페는 벌써 이름부터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산타페에 얽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전해드리기로 할게요.

뉴멕시코는 주 이름답게 멕시코계 미국인, 달리 말해 중남미계, 히스패닉 미국인 비율이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뉴멕시코의 히스패닉계 인구는 약 48% 정도고요. 미국에서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주라고 하네요. 프랭크 맥과이어 씨의 도움말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프랭크 맥과이어 씨] “뉴멕시코는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였던 역사적 배경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과 스페인 사람들, 멕시코인, 물론 백인들까지 다 섞여 있습니다. 뉴멕시코주에 원래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의 후예들도 있고,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있는데요. 히스패닉계가 가장 많고요. 백인은 약 38% 정도됩니다. 흑인이 2.5%, 아시아인도 2% 정도됩니다.”

뉴멕시코에는 한인들이 별로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네요. 문상귀 한인회장 도움말입니다.

[녹취: 문상귀 씨] “주 전체에 한 5천 명 헤아리고 있고, 앨버커키에 한 2천7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단합이 아주 잘 되고요. 한국학교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한인들은 그래도 안정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 아니면 회사, 특히 이쪽에는 원자력 연구소가 잘 발달해 있어서 박사님들이 많고요. 일반인들은 거의 개인사업 합니다. 그 외에는 직장 갖기 어려운 주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나 시보다 한국 분들이 적습니다.”

뉴멕시코주는 고원 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가장 높은 산이 해발 4천m 정도 되고요. 사람들이 사는 곳도 대부분 해발 1천500m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녹취: 문상귀 씨] “저희 사는 곳이 해발 5천500ft, 한라산 높이인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고산증 걸리실 수도 있고, 좀 힘든데요. 운동선수들에게는 호흡량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이 여기 와서 훈련 많이 받고 갑니다. 극한 훈련을 할 때 이쪽 높은 지역으로 옵니다.”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대회 때 은메달을 딴 한국의

(17쪽으로 계속)



#21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출판한 '견우와 직녀의 행복한 미국생활(부제:미주 생활 가이드북)'은 재미 동포에게 필요한 이민, 교육, 의료, 연금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본지는 연속 시리즈로 가이드북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일리노이주에서 출판된 자료임으로 2018년 뉴멕시코주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편집부)

## 4-3 자녀의 대학 학비 연방 보조(FAFSA)



견우에게는 두 딸, 콩쥐와 팔쥐가 있다. 보통 미국 이민자 부모들이 그렇듯이 생업에 바빠서 아이들의 학습지도를 잘 해주지 못했지만 콩쥐와 팔쥐 모두 공부를 열심히 해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은 편이다.

콩쥐는 작년에 대학입학시험인 SAT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현재 동부와 서부의 명문대에 입학신청을 한 상태이다. 주변사람들은 항상 딸 콩쥐를 칭찬하며 부러워했고 그럴 때마다 견우는 힘든 이민생활에 대한 보상을 받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그에게 두 딸은 자라이자 또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딸 콩쥐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비싼 대학학자금 때문이다. 사립학교의 경우1년에 드는 학자금 비용이3-4만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많은 비용을 마련해야 할지 근심이 많다. 고심을 하던 끝에 콩쥐가 입학할 학교에 재정 보조 상담원 (Student Financial Aid Counselor)에게 연락을 했다.

상담원: 안녕하세요? 재정 보조 상담실입니다.

이견우: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그 학교에 입학할 생각하고 있는 학생의 아버지인데요. 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경우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형편이 넉넉치 않아 용자를 받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요.

상담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견우: 연방 정부에서 학자금 보조를 해 주나요?

상담원: 예, 부모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6,095(2018년 기준)까지는 다시 갚으실 필요가 없는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구요. 장학금으로 충당이 되지 않는 금액은 용자를 해 주거나 학생이 학교 내에서 일을 하면서 학자금 일부를 버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자체 내에서 제공하는 장학금도 있구요. 그외에 미국 전역에 여러 재단과 개인이 제공하는

장학금 기회들도 알아봐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견우: 그렇습니까?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상담원: 아직 저희 학교를 고려하시는 중이라면, 따님과 함께 방문을 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이견우: 저희가 시카고에 살고 있어서 방문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전문가의 한마디

### FAFSA

12학년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대학의 합격 여부와 함께 학자금 준비로 걱정이 많습니다.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을 이야기 하면서, FAFSA 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FAFSA 란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의 약칭으로 연방정부의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을 의미합니다.

신청은 매해 1월 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 ([www.fafsa.ed.gov](http://www.fafsa.ed.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둘째 인터넷 사이트 ([www.fafsa.ed.gov](http://www.fafsa.ed.gov)) 에서 PDF 양식을 출력한 후에 작성해서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전화 (1-800-4-FED-AID)를 해서 FAFSA 양식을 요청해 우편으로 양식을 수령 한 후에 작성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FAFSA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FAF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셜번호를 가진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GED 또는 ATB 테스트 통과자도 가능) 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8 - 25세 사이의 남학생의 경우에는 Selective Service 에 등록해야만 FAFSA신청후에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FAF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학생의 전년도 세금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즉, 2014년 1월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FAFSA 2014-2015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의 2013년 세금 보고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같은 기간동안, 학생의 소득이 있고,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2013년도 학생의 세금 보고 자료도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과 부모의 소셜번호, 기타 금융 투자 서류 (예를 들면 Bank Statements, Investment Account Information), 그 외에도 상황에 따라 운전면허증, 영주권카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1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2014-2015 FAFSA신청은 2014년 가을 학기와 2015년 봄 학기, 두 학기의 동안의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입니다. 따라서 2015년 봄 학기 이후에도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에는 2015-2016 FAFSA 신청을 2014년 세금 보고 자료를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12학년 학생이나 대학 재학생의 경우 모두 다 학교를 졸업 할 때까지 매해마다 FAFSA 연방 정부의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4-4 자녀의 대학 학비 장학금(CSS Profile)

“음, 그런데 CSS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뭐지?” 대학 입학 재정 보조 서류를 들여다 보고 있던 권우가 직녀에게 고개를 돌리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여보, CSS 프로파일이란 것이 아무래도 지난번 선덕 언니가 준비하던 것 같아요.” “아, 그 집 아들이 이번에 대학 입학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했지? 여보, 그 집에 전화를 좀 걸어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봐 줄 수 있겠어?”

직녀는 예전에 선덕과 대화하던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네, 그런데 이 CSS 프로파일은 FAFSA와는 달리 각 학교마다 질문 내용과 준비하는 서류가 다르고 복잡하다고 들었어. 아무래도 내일 언니 집에 방문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공쥬하고도 상의를 해야할 것 같아요”.

### 전문가의 한마디

#### CSS 프로파일

대학 입학 지원서 작성에 많이 바쁜 계절이 되면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아 집니다. 사립, 공립, 그리고 2년제 대학을 망라해서 연방 보조금, 대출 및 워크 스터디 (Work Study)는 FAFSA 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약 350개의 사립 대학과 장학금을 수여하는 다수의 민간 기관에 입학 원서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또 하나의 신청서인 CSS (College Scholarship Service) 를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CSS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AFSA 와 달리, CSS 프로파일은 각 학교의 자체 학자금 보조를 결정하는 신청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FAFSA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가족의 소득 관계 및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FAFSA 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많은 질문을 대답하게 됩니다. FAFSA가 소득 위주의 신청서라면, CSS프로파일은 소득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고려하는 신청입니다. 예를 들어, FAFSA는 거주 주택의 홈 에퀴티, 생명보험, 은퇴연금, 그리고 이혼한 경우 비 양육 부모의 자산 등은 고려하지 않지만, CSS프로파일에서는 이런 정보가 모두 보고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혼한 부모에게는 FAFSA와 달리, 부모 모두의 재정과 자산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비양육 부모는 추가 신청서인 Non-Custodial parent CSS

프로파일을 접수해야 합니다.

학교에 따라 특별 문항(Special Question)이 요구될 수도 있는데, 아주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종교는? 어떤 차를 소유하고 있는가? 교회를 다닌다면 어느 교단 소속인가등등은 아무리 보아도 학자 신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립 대학에서 입학생에게 주는 보조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대학 자체에서 주는 무상 보조금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꼭 보조가 필요한 학생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SS프로파일에는 소득과 자산만을 가산하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출이나 부채에 대해서도 고려합니다.

FAFSA는 신청 기간이 항상 동일하지만, CSS프로파일은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 특히 조기 입학 신청을 하는 학생과 부모는 학자금 신청 기간 또한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FAFSA신청은 무료지만 CSS 프로파일 신청은 유료입니다. CSS프로파일 접수는 칼리피보드에서 하고 자녀의 SAT 등록때 사용한 접속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것을 부모의 명의로 바꾸는 것이 재정 보조 신청에 유리합니다. ■

### 타박타박 미국여행 : 뉴멕시코 15쪽에서 계속

유명한 마라톤 선수 이봉주 선수도 이 곳에 와서 훈련을 했다고 하네요.

[녹취: 문상귀 씨] “그래서 이봉주 마라토너가 여기 와서 훈련하고 보스턴 마라톤 가서 우승합니다. 일단 여기는 나가면 직사광선인데요. 워낙 해하고 가까우니까 자외선 차단제 안바르면 늘 피부색이 어둡게 돼요.”

뉴멕시코주의 날씨는 어떨지도 물어봤는데요.

[녹취: 문상귀 씨] “여기 날씨는 한국 하고 사계절이 같습니다. 여름이 좀 덥고, 조금 덥고, 겨울은 한국하고 같다고 보고요.”

뉴멕시코주는 주 전체가 고원 지대로 돼 있어서, 위도상으로는 남쪽에 있어도 그렇게 덥지가 않다고 하네요. 거의 일 년 내내 구름이 없는 화창한 날씨가 펼쳐지고요. 7월 가장 더울 때도 저지대의 경우 섭씨 35도 정도, 고지대는 25도 정도로 심한 더위는 없다고 해요. 또 습하지 않고 건조해서, 특히 폐 질환에 좋다고 합니다.

[녹취: 문상귀 씨] “습기가 거의 없어서 어르신들, 연세 있는 분들 여기 살기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앨버커키는 노인층이 30% 이상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마치 손이 닿을 듯 펼쳐지는 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뉴멕시코 주 주민들은 자랑하네요.

네,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풍물, 이야깃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여행,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주에는 예술의 도시로 알려진 뉴멕시코 산타페 이야기 조금 더 살펴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 었습니다. ■

# 성령의 열매



김기천 목사

본문 : 갈라디아서 5장 16-26절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Love)과 희락(Joy)과 화평(Peace)과 오래 참음(Patience)과 자비(kindness)와 양선(goodness)과 충성(faithfulness)과 23. 온유(gentleness)와 절제(self-control)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근육이나 뼈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 있고, 몸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또한 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지방”이 있고,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과 같은 “미네랄 (=무기물)”이 있으며 몸무게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요소는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9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셋씩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 셋은 “사랑, 희락, 화평”이지요. 이 열매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고 체험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희락 즉 기쁨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생활하면서 누리는 하늘의 평화 즉 화평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셋은 “오래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성령의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열매이지요. 성령의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참을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때까지 또는 변화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릴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자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또는 생각으로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양선”의 모습이 있지요. 성령의 사람은 “양선” 즉 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지요. 세 번째 셋은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열매들은 성령의 사람의 사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맺어야 하는 첫 번째 열매가 “충성”입니다. 당연히 충성의 대상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지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또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누가보아도 온유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지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지요.

성령의 9가지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즉 본문은 “사랑 또는 희락 또는 화평....”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9가지 중 하나만 맺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열매 모두를 맺어야 합니다.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6가지의 요소가 모두 필요한 것처럼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9가지의 열매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오래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 사명 감당을 위해서 맺어야 하는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모두 맺고 살아갑시다.

지난주 설교 요약 09-23-2018

Youtube Link:

<https://youtu.be/iilvzqDzbyc>





수필

## 선유당(仙遊堂) 문을 열며



**이명길**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원로목사(선교사)

지난 9월 28일 오전 11시 반 저희 집 1층에서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김기천 목사님과 장로님, 어버이회 회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선유당 개소식 예배(仙遊堂開所式禮拜)를 드렸다. 선유당(仙遊堂)은 알버커키에 사는 한인 노인들의 휴식처와 만남의 장소로 한인 누구나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사랑방 혹은 노인당 같은 곳이다.

필자는 2016년 7월 11일 뉴욕에서 알버커키로 이사 왔다. 1970년에 뉴욕으로 이민 와 살던 곳을 쉽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4년을 외국에서 선교사로 살았던 경험 때문일 것이다. 선교지에서 철수 뉴욕에 살려 하니 친구였던 목사들은 다 늙어 은퇴했고 자식 따라 뉴욕을 떠나거나 먼저 하늘나라에 가버렸거나 대부분 낮은 젊은 목사님들이었다. 전에 섬겼던 교인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고 무엇보다도 결혼한 자녀들이 하나도 뉴욕에 살지 않아 선교지보다 더 외로운 곳이 되어 버렸다. 돌아온 이름 없는 선교사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사회보장금 타서 생활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벅찬 곳이었다. 그래서 집을 팔아 타주로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알아보았는데 자녀들이 사는 산호세나 대도시의 집값이 비싸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집을 팔아서 외대 다녔던 아들 은행 빚을 갚아 주다 보니 자식들 근처에 집사기가 버거웠다. 그래서 찾아온 곳이 알버커키다.

현재 우리 집은 나이 든 사람 살기에는 좀 크다. 하지만 집값은 뉴욕집의 절반이다. 산 밑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여 알버커키시가 다 보이는 전망 좋은 집이다. 전 주인이 수영장 만들 모든 하수구 시설을 다 해놓아 수영장 만들면 여름에 손자들의 와서 즐길 수 있는 좋은 할아버지 집이라 생각했다. 목회한다고 자식들에게는 너무 잘못해 후회막심한지라 손자들에게는 좋은 조부모로 인정받고 싶어서 여름 방학 놀이 장소로 참 알맞다 생각했었다. 그러나 막상 집을 사고 보니 8명이나 되는 손자들과 그 부모인 내 자식들은 할아버지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만들어 놓아도 매년 여름 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큰 놈들은 나보다 키가 훌쩍 커버린 청년들이라 여름이면 활동하는 일이 많고 대학 진학 준비 등 너무 바빠 올 수 없단다. 큰 집이 무용지물이 될게 뻔했다. 수영장은 너무 일이 많고 비용이 든다고 대부분 사람이 또한 말렸다. 그래서 수영장 설치를 접고 땅에 묻힌 모든 가스관과 하수도, 물파이프 등을 파내고 그곳에 정원을 만들어 분수대, 꽃밭, 채소밭을 만들고 플럼, 배, 감, 버찌(Cherry), 석류나무 등을 심고 잔디를 깔았다. 단조롭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원이다. 누구나 오셔서 탁 트인 사막과 알버커키 도시, 저녁이면 야경을 보며 쉼을 얻기에 충분한 곳이다. 더구나 집 뒷마당은 이 동네의 차들이 지나다니는 큰 길이면서 집 주차장이 문이 있어

동양인들이 선유당에 와서 차를 세워도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을 여건이어서 선유당 오기가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다.

선유당 문을 열게 된 것은 알버커키에 있는 노인들과 친해지고 싶어서다. 필자도 자녀들이 멀리 살다 보니 우리 부부만의 생활은 외롭다. 가깝게 자녀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부러울 수가 없었다. 와서 보니 대부분 노인들은 자녀들이 멀리 살기 때문에 우리처럼 외로움을 보았다. 늙으면 손자들이랑 뒹굴며 살고 싶었던 꿈이 다 사라져버렸다. 사별하거나 기타 이유로 혼자 시키는 분은 더욱더 외로운 것이 사실이다. 늙어갈수록 같이 모여 수도도 떨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다 한다. 마사지도 하고 바둑 장기도 두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아마도 조금은 더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노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고 싶었다.

더욱이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가는 곳마다 이웃을 봉사하다 보니 초대 교회 자기 집을 활짝 열고 동네 사랑방 겸 교회까지 가졌던 기록들을 보면서 내 집을 열어 만남의 장소로 쓰이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내게는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곳에 와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며 꿈이었다.

원래 기독교 초창기는 교회가 거의 성도들 개인 집에서 출발했다. 박해도 있었고 모일만한 장소가 없는 초창기 교인들은 즐거이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었다. 가정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기독교 선배들은 모이는 사람 모두가 형제자매로 한 가족처럼 서로 돕고 사랑했었다. 이런 열심과 봉사와 사랑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었다.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친근감과 일체감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삶의 귀감을 보여주었다. 지금도 이런 소규모의 모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은 이미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의 교회 출석을 돕는 차량 운행을 자원하여 실시하고 있다. 아직 많은 분은 아니지만, 교회 오기 불편한 분들에게 교회 출석하는 일을 섬기고 있다. 새로 다른 주에서 이사 온 노인들이 차가 없어 교회 나오지 못하며 교회에 나와도 서먹서먹한 기분이 사라지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예배에 참석할 뿐 아니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신앙의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본다.

흐뭇한 일이다.

이런 승차 기회를 한인 선유당 참석자에게도 제공하고자 한다. 이미 어버이회 매주 수요일 점심 식사 픽업은 한인 연합 감리교회에서 모든 차량 비용을 제공함으로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선유당 문도 열었으니 차편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모시러 가는 것도 감당하려고 한다. 선유당에 오시는 분들에게는 중국에서 가장 값비싸고 한국에 사람이 즐기며 건강에 유익한 보이차(普洱茶)(중국 발음은 푸얼차)를 대접코자 한다. 다만 점심식사는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어 마음은 있어도 접기로 했다. 그러나 라면 정도는 항상 비치할 생각이다. 혹 어버이회에 라면이나 패스트 푸드를 기부해주시면 준비해둔 전자레인지에 덩혀 드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노인들이 쉬면서 즐길 수 있는 전기 마사지 기계 3대를 구입해 놓았다. 한꺼번에 오셔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사지 하면서 한국 텔레비전도 볼 수 있도록 큰 것을 준비하여 두었다. 피곤하면 낮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작은 침대도 준비되었고 소파도 Recline이어서 편히 쉴 수 있다.

선유당 이름은 어버이회에 나오시는 이정길 교수님이 지어주셨다. 만남의 장소 혹은 사랑방 노인당 여러 이름을 생각해보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너무 흔한 용어여서 그럴 것이다. 이 교수님께 부탁했더니 많이 생각하시고 한 주일 후 답을 주셨다. “신선들이 노니는 집”이란 선유당(仙遊堂)이 어떠냐고 하셨다. 제가 목사인데 중국이나 한국에서 옛날 전설에 나오는 신선이 노는 집이란 말을 그냥 쓸 수 있을까 조심스럽기도 했다. 그러다 심사숙고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생겼다.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이미 신선이 아니겠는가?

원래 신선이란 말은 중국 고대부터 쓰이는 말이다. 초기에는 신이 인간이 되어 산세 험한 높은 곳에 사는 고상하고 이상적인 존재로 전해졌다. 그러나 후에 도교에서 신과 인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로 덕망이 있고 인품이 후한 사람들은 죽으면 신선이 되거나 산 사람도 신선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설화는 한국에도 전래하여 신선의 이야기는 선한 인간이 되고 싶은 사람들의 이상적인 신-인 존재로 미래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 되고자 하는 바람들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도교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타 문화권의 전설이나 설화 속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수없이 접한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신, 불신을 막론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내재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타 문화권의 전설 중에도 성경과 비슷한 설화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의(義)란 글자는 “나 위에 양”이란 두 뜻글자가 합쳐진 것이다. 성경은 나 대신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됨”을 가르친다. 어떻게 중국 글자 “의”를 이렇게 쓰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학자는 진시황이 한자를 통일할 때 많은 학자들을 죽이고 책을

불살랐기 때문에 기록이 없어졌다 한다. 이 신선 사상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성육신” 사상이 이미 있었고 후에 도교에서는 “인간이 선하게 삶으로 신적인 존재가 되는 신선” 이야기들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그 신선이 함께 노는 곳이 선유당이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상에 사는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면에 함께 거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가르친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비록 외모로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살고 있어야 그를 “신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 모두를 “성도 혹은 성자”라고 불렀다. 기독교인도 아직은 죄인이고 죄짓고 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영이 살고 있어 그가 사는 동안 점점 성스러워지고 변하고 성장하는 것이다. 비록 성 어거스틴 같은 성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삶에 변화가 생기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의 사람임은 틀림없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을 성도(Saints)라고 불러주는 것이다. 이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 나라라 부르고 이들이 모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교육받는 곳을 교회라고 부른다. 이 모습이 원래 최초로 창조되었던 인간 모습이다. 처음 에덴동산의 영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지상에서도 에덴의 행복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성도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참된 기독교인들은 벌써 세속 생활과 구별된 신선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분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고 세상 걱정을 하면서 사랑하고 친교 하며 세상을 살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찾아 구도하는 신선들이라 해서 지나친 과장일까? 선유당은 낙원이요 행복을 나누며 누릴 수 있는 만남의 장소라 해서 지나친 과찬인가?

선유당이 이런 꿈과 생각을 하는 분들이 담론하고 우정을 나누며 함께 쉬고 즐거움을 누리며 함께 성장하는 황혼의 인생을 산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박한 꿈이 나이 많으신 분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이 되길 바란다. “노년이 행복하면 살아온 한 인생이 행복하다”는 말은 진리일 것이다. 알버커키 뉴멕시코 어버이 회의 번영을 빈다. ■

#### 선유당 오는 길(한인회관에서)

1. 회관에서 나와 왼쪽으로 틀어 Menaul Blvd로 Juan Tabo를 거쳐 Tramway(동쪽) 산 쪽으로 올라간다.
2. Tramway에서 오른쪽으로 틀어 가다 Indian School Road를 만나면 왼쪽으로 틀어 산 쪽으로 올라간다.
3. Camino De La Sierra를 만나면(범포 5개를 지나자마자 나타남) 오른쪽으로 틀어 0.2마일 정도 간다.
4. 길 왼 쪽에 큰 물통(수돗물 저장탱크)을 보면 그 앞길 왼쪽으로 Pinnacle View Drive로 들어선다.
5. 첫 번 왼쪽 길 지나 더 직진하면 왼쪽으로 크고 긴 철문이 보인다. 그 곳이 선유당이다.
6. 길옆에 차를 파킹하고 파킹장으로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1층 선유당이 보인다.

선유당 주소: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전화: (505)717-2590



# 원치않는 전화 차단하기



원치 않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불법 행위를 막으려고 정부 기관에서는 노력하고 있지만 원치 않는 전화를 보내는 불법행위는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첫 4개월 동안만 보더라도 미 전역 각 가정에 걸려온 로보콜(Robocall)의 통계는 120억 회가 넘었다고 전화차단서비스(Call-Blocking Service) 회사인 유메일 (YouMail)에서 발표했다. 이는 매 시간당 4 백만회의 전화 횟수에 해당하며 전년보다 늘어난 숫자이다. 로보콜이 아닌 사람이 전화하는 판매나 광고 전화의 횟수도 늘어만 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답은 간단하다.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법 전화를 보내는 스캐머(Scammer)나 스팸 발송자(Spammer)들은 매일 수천만 회의 전화를 자동 다이얼 기기를 써서 전화를 거는데 드는 비용은 불과 몇 달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다가 반면 얻어지는 수익은 들어간 비용에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불법전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로 인한 피해액은 2백억 불에 달한다고 한다.

원치 않는 이런 전화를 피하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일까? 발신자 번호를 보고 의심스러운 경우에 수화기를 들지 않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반복해서 걸려오는 전화를 막을 수는 없다. 의심되는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나오는 보이즈메일 (Voicemail) 응답기의 인사말이 상대방에게 이 전화번호는 사용되고 있는 전화번호라는 증거를 주기 때문에 계속 스캐머의 표적대상에 들어있게 된다.

전문가가 권하는 원치 않는 전화 차단하는 방법 몇 가지를 광야의 소리 독자에게 소개한다.

## ● 전화 받고 침묵하기

전화를 받을 때 “Hello”라고 말하든지 무슨 말을 하는 순간 자동음성 식별기가 작동해서 로보콜 녹음기나 콜센터(Call Center)로 전화를 접속시키게 되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과 통화를 하게 만든다. 만일 수화기를 들고나서 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면 일반적 로보콜인 경우라면 수초 후에 전화는 끊어진다. 만일 전화가 로보콜이 아니고 사람이 건 전화라면 전화 건 사람이 먼저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말소리를 들어보고, 누구인지 식별이 안 되면 수화기를 놓고 전화를 꺼버리는 방법도 쓸 수 있다.

## ● 앱으로 차단하기

스마트폰으로 걸려오는 원치 않는 전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앱

(App)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 많은 경우 이런 앱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AT&T 고객들은 Call Protect라는 앱을, Verizon Wireless고객은 Caller Name ID를, Sprint 고객은 Premium Caller ID, T-Mobile 고객은 Scam ID 또는Scam Block을 쓸 수 있다. YouMail이나 RoboKiller라는 앱도 원치 않는 전화를 걸러내는 우수한 앱으로 알려져 있다.

## ● 휴대폰에서 차단하기

휴대폰으로 일단 들어온 전화번호는 휴대폰에 설치된 기능으로 쉽게 차단할 수 있다. iPhone 사용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전화번호 리스트에서 차단하고 싶은 전화번호 오른쪽 끝에 있는 동그라미로 둘러싼 “i” 글자를 클릭하면 메뉴가 나온다. 밑으로 스크롤 하여 내려가서 “Block this Caller”라고 쓴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삼성 갤럭시와 같은Android 스마트폰의 경우는 전화 앱에서 전화번호를 클릭한 후 Detail을 클릭한 뒤 Block Number를 클릭하면 된다.

## ● 한번 울리는 One-ring 전화는 조심할 것

한번 울리고 꺼지는 전화가 있다. 호기심으로 누가 전화를 했을까 하고 전화를 걸어보면 스팸 전화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번호가 268, 284, 809, 876일 경우 국내전화로 착각하고 전화를 걸지만, 이들 번호는 카리비안 지역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여서 비싼 전화 요금도 물어야 된다. 한번 울리고 꺼지는 전화는 원치 않는 스팸 전화일 확률이 높다.

## ● 스팸 전화식별

스팸 전화가 무엇을 노리는지를 미리 알고 경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스팸 전화는 크레딧 카드 비용을 줄여보라든지 싼 이자의 융자를 제공 한다든지 싼 가격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방법 등을 선전하기도 하고 Utility회사 직원으로, 정부 기관 공무원으로 가장하고 납부해야 할 돈을 보내라는 등의 사기를 치기도 한다. (글: 편집부) ■

(참고기사: Stopping Spam Calls by Sid Kirchheimer, AARP Bulletin Oct.,2018)

## 유머칼럼



## “갓” 을 쓰고 다니는 조선인

옛날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은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갓이요.”

“아니 갓이라니! 갓(God)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아닌가?”

선교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양반은 한자로 글자로 쓰며 대답했습니다.

“朝鮮이요! [아침 朝 + 깨끗할 鮮] 이렇게 씁니다.” 라고 대답하며 글자를 써 보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라

“깨끗한 아침의 나라, Morning calm의 나라란 말이 맞는구나.” 라고 말하고는 조선의 ‘朝’자를 풀이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양반은 천천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습니다.

“먼저 𠂇 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의 日자를 쓰고 또 𠂇 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月자를 썼습니다. 이렇게요.”

[십자가+ 날일 日 십자가+ 달월 月]

선교사는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낮(日)에도 십자가(十) 밤(月)에도 십자가(十), 하루종일 십자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鮮자도 풀이해 주시오.”

“물고기 魚 옆에 양 羊 자를 씁니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초대 교회의 상징인 ‘익투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이고, 또 羊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鮮자는 완전히 신앙고백의 글자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여 말하길

“朝鮮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

감탄을 하며 선교사가 또 질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Chosen People 이라고 씁니다.”

“와우! 선택된 (Chosen) 사람들 (People),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選民) 입네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동남아노회 자유게시판에서) ■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류종재 목사 (505) 385-6545  
 주일예배 시간: 오후 1:30 pm  
 영어예배 시간: 오후 12:00 p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웹사이트: home.kcmusa.org/disciples

###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e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3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금요일기도회(금,저녁)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 클로비스 한인 교회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모임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a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광야의 소리 페이스북에서  
 더 많은 관련사진과 새로운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  
 voiceofnm/**



**광야의 소리 지난호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voiceofnm.kumcabq.com**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b>알버커키 Albuquerque</b>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b>식당 Korean Restaurant</b>	<b>식품점 Korean Grocery</b>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b>건축/페인트 Painting</b>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sian Pear 8101 San Pedro Dr. NE, Ste D ABQ (505)766-9405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b>공인회계사 CPA</b>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Stadium Liquor 1306 Brodway SE ABQ, NM (505-242-8542)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b>의류 Clothes</b>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BQ (505-884-2202)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b>자동차정비 Auto Repair</b>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b>교회 Church</b>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b>부동산 Realtors</b>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ABQ(505-883-3618)  Jasmine Thai & Sushi House 4320 The 25 Way, NE Suite 300, ABQ (505-345-0960)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BQ (505-830- 9400)  Dot Clothing Co 9601 Sage Rd. SW ABQ 87121 (505) 831-8812  Fashion USA 201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55-0878)	<b>주택용자 Loan Officer</b>  김미경 Mikyong Kim Bank of Albuq. Mortgage 3900 Vassar Dr. NE (Office 505-855-0586) (cell 505-379-2944) mkim@bokf.com
<b>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b>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b>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b>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b>사진관 Photo</b>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 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6 (505-839-8697)	<b>종재서비스</b>  ADR-Mediai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b>주님의 교회</b> 12120 Copper Ave NE ABQ (505-903-2297)	<b>세탁소 Dry Cleaners</b>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BQ 87109 (505-797-8000)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b>이발소 미장원 Hair Cut</b>  Salon 47(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b>컴퓨터 서비스</b>  SH Consulting(이성희) 505-933-9004 Remote/Onsite Computer Support.
<b>단요가 Dahn Yoga</b>  알버커키 505-797-2211 커튼우드 505-792-5111 산타페 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이스트마운틴 505-286-3535 www.dahnyoga.com	<b>리커스토어 Liquors</b>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47 (505-296-2335)	<b>치과 Dental Clinic</b>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등록을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무료.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

**태권도 TaeKwonDo**

---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

**한의학 Acupuncture**

---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

Dr. James D Park: (박달±)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

**화원/원예 Nursery**

---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

**라스베가스  
Las Vegas**

---

**치과 Dentist**

---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

**공인회계사 ACC**

---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

**카페/ 선물 Cafe/Gift**

---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

**병원 Clinic**

---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

**건강식품 Health Food**

---

인성내츨: Los Alamos (505-  
662-9681)

---

**미장원 Hair Salon**

---

차진주 헤어(Pea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

**교회 Church**

---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

---

**리오란초  
Rio Rancho**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Maki Yaki  
4300 Ridge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버나리요/벨렌/  
보스키팜 /로스루나스  
Bernalillo/Belen/Bosque  
Farms'Los Lunas**

---

**식당  
Chinese Restaurant**

---

Bamboo Express  
143 Highway 314 SW  
Los Lunas NM87031  
(505) 866 6888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

**산타페  
Santa Fe**

---

**손톱미용 Nails**

---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

**변호사 Law Firm**

---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

**베이커리 Bakery**

---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

**리커스토어 Liquors**

---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

**교회 Church**

---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

**클로비스  
Clovis**

---

**교회 Church**

---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

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

**식당 Restaurant**

---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

**식품 Korean Grocery**

---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

**치과 Dentist**

---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

**화밍톤  
Farmington**

---

**교회 Church**

---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

**상점 Store**

---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18년 11/12월호  
발행일 : 2018.11.10.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505)341-0205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야의 소리에 비즈니스 광고내시길 원하시면  
voiceofnm@gmail.com으로  
신청/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http://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http://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 The Garage

##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앨버커키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크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一番

##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www.abqsushiandsake.com](http://www.abqsushiandsake.com)

Lunch  
11:30-2:30 Mon-Sat

Dinner  
5:00-9:30 Mon-Thur  
5:00-10:00 Fri-Sat  
12:30-8:00 Sunday

#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mailto: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http://www.R1newmexico.com)

505.883.9400